

경남 고성 옥천사엔 어떤 유산이 있을까

동북아불교미술학, 18일 학술대회

천년 고찰 고성 옥천사의 문화유산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는 6월 18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경남 고성 옥천사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선일(문화재청)·조태건(불교문화재단연구소)의 고성 옥천사 명부전 불상과 조각승 경옥 △김요정(충북대)의 옥천사 목조불패 연구-재질과 제작연대를 중심으로 △김희경(한국고미술학연구소)의 옥천사 나한전 심육나한상 제작자 추론 △김정원(불교문화재단연구소)의 옥천사 조선허기 석조부도 연구 등이 발표된다.

옥천사는 현재 쌍계사의 말사로, 670년에 의상(義相)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웅전 뒤에 맑은 물이 나오는 샘이 있어 옥천사라고 불리게 됐다고 한다. 옥천사는 중국 당나라에 가서 화엄종의 시조 지엄(智嚴)에게 화엄종을 배우고 돌아온 의상이 강론한 곳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학 박사 논문

번역 지원 사업 공모

지원사업회, 6월 20~25일 접수

소장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해온 (사)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가 '2016년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공모사업은 불교관련 박사학위 논문 지원과 불교관련 번역 지원 등 2개 분야다.

박사학위 논문 지원 분야는 지원자 중 2명을 선발해 500만원 씩 1,000만원을 지급한다. 학위 취득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번역 지원 분야 역시 2명에게 지원되는데 인도 쪽과 동아시아 쪽 서적으로 나눠 1,000만원 씩 2,000만원을 지급한다.

박사학위 논문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박사학위논문 전자 파일(아래 한글 혹은 PDF 전자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PDF 파일의 경우 원 논문과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용 논문 두 가지로 접수해야 한다. 번역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는, 번역계획서 및 번역 원고 1부를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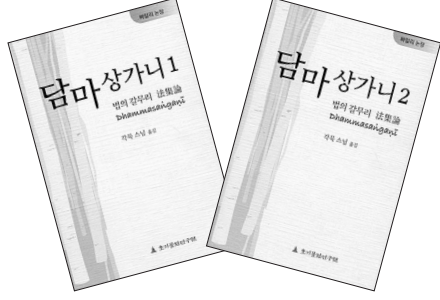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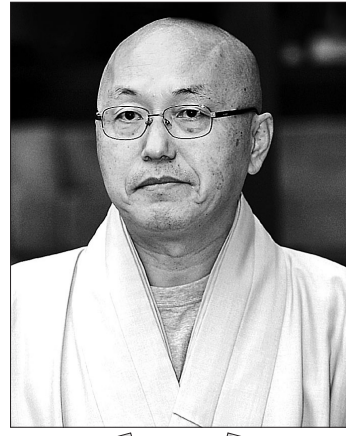
접수기간은 2016년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 간이다. 심사결과는 9월 중에 개별통지하며 불교계 언론에 공고된다. (010)8789-3083 신성민 기자

“초기 논쟁엔 ‘제법실상’ 이치 담겨”

《諸法實相》

〈담가상가니〉 2권 완역한 초기불전연구원 각목 스님

빠알리 칠론 중 첫째 논장 ‘법에 대한 연구’ 주요 내용 방대한 주석·해제 이해도와



제2권 물질, 제3권 간결한 설명, 제4권 주석 등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됐다.

사실 원전의 분량은 230쪽 남짓이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각주가 달렸고, 논어가 어떤 내용 인지를 친절히 정리한 역사 서문과 각 권에는 해제가 별도로 붙었다. 실제 1권에는 840개, 2권에는 485개의 주해가 달렸으며, 전체 책 분량만 1250쪽에 달한다.

2권의 한글 완역본은 논의의 주제를 뜻하는 ‘따따까’와 제1편 마음의 일어남, 서문과 해제 역시 쉽게 풀이돼 꼼꼼히

읽어 내려간다면 〈담가상가니〉와 빠알리 논장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원전에 대한 번역은 시간이 별로 소요되지 않았지만, 각주와 서문, 해제를 쓰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게 각목 스님의 설명이다.

이번 번역서에 대해 각목 스님은 “논장은 법의 전문자가 돼야할 승가를 위한 전문적인 가르침”이라며 “〈담가상가니〉에는 제법실상(諸法實相)의 이치가 담겨 있다. 법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님은 ‘나의 제자는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고 했다”면서 “현재 한국 승가는 법이 아닌 재물의 상속자가 되고 있지 않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선적으로 법에 대한 연구를 승가가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논장 즉 아비담마는 부처님의 직설임을 주장했다. 각목 스님은 “흔히들 아비담마는 제자들이 정리한 체계라는 인식을 하지만, 〈담가상가니 주석서〉는 율장과 경장의 증거를 통해 아비담마가 부처님의 직설임을 증명한다”면서 “〈담가상가니〉도 1, 2, 3권은 부처님의 직설이며, 4권 주석이 상수제자인 사리풋타 존자의 설명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제종교장 결집 어떻게 진행될까?

고려대장경연구, 11일 교장 결집 사업 4차 보고회

고려 교장 결집사업을 추진 중인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필)가 조사·연구 과정을 공개하는 보고회를 개최한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오는 6월 11일 오후 1시부터 경남 안의 책박물관 ‘고반재’에서 ‘고려 교장 결집과 DB구축 사업’ 4차 조사보고회를 개최한다.

‘신편제종교장총목(新編諸宗敎藏總錄)’ 총람의 기초 : 전존 현황과 통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보고회는 1,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학술발표는 서대원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신편제종교장총목〉소재 장소(章疏)의 불교학적 가치와 의의(의의) 최종 중앙승가대 교수 △〈신편제종교장총목〉의 찬술배경과 서지기술 및 내용구성에 관한 연구(김성수 청주대 교수)가 발표된다.

이어 2부 학술발표는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의 사회로 △2015년 한·중·남권의 경북대 교수 △ 교장의 서명(書名)에 대한 시고(試考) : 지자 대사 저술(智著 大師 著述)을 중심으로(서대원 충북대 교수) △ 〈신편제종교장총목〉의 대교(對校)와 교감(校勘) 연구(박용진 능인대학원대학교 교수)에 대한



중국국가도서관에서 교장을 조사중인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원들.

주제 발표가 이뤄진다.

고려시대의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대장경의 주석서를 수집하여 편찬한 목록집 〈신편제종교장총목(新編諸宗敎藏總錄)〉을 일반적으로 아직도 속장경으로 알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교장은 ‘고려 대장경총람’이 바른 이름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제종교장을 결집하고 DB화 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학술조사보고회가 열리는 장소인 고반재는 “사유하는 이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학습하면서 지혜를 생각하게 하고자 창설한 천년을 잇고 천년을 담은 천년지장(千年之藏)의 책 박물관”으로 상반지 중에 개관될 예정이다. (02)926-8144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유산 백제유적지구, 내 손으로 지키다

문화재청, 국민참여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시행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눠 관리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오는 6월부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관람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충남 공주· 부여, 전북 익산 지역에 흩어져 있는 8개의 유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인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기관이 분산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미리 대응하여 세계유산의 위상을 결맞은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됐다.

통합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요원이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APP)에 입력하는 방식과 △일반인이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문화재 관리와 관람객 불편·건의사항, 당해 유적의 세부적인 상태와 발생된 문제점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관리된다.

특히,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찾는 누구나 현장에서 QR코드에 접속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전자우편 주소만 기재하면 손쉽게 모니터링하며, 건의·제안을 올리고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는 등 쌍방향 소통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을 운용할 백제세계유산센터는 입력된 내용을 매일 비교·분석·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거나 관련 자치단체와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 모니터링 운영을 통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면 다른 문화재에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인쇄 문화 상징 ‘고판화’ 연구단체 창립

세계고판화협, 5월 30일 창립

초대회장 한선학 관장 추대

5개국 6개기관, 30명 참여



5월 28일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에서 열린 세계고판화문화축제에서 동아시아 5개국 고판화 전문가 30여 명이 ‘세계고판화연구보존협의회’를 창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아시아 인쇄문화의 꽃인 ‘고판화’의 중요성을 연구·보존하기 위한 협회가 발족했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5월 28일 제7회 원주 세계고판화 문화제에 참여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타이완 등 5개국 6개 기관의 관계자 30여 명의 발의로 ‘세계고판화연구보존협의회’가 창립됐다”고 5월 30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동아시아 고판화 4,2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과 한국고판화학회에 참여하였으며, 해외에서 중국 무강년화박물관과 일본의 교토 운소도와 리치메이칸대학아트 리서치센터, 베트남 동호화제작소 등이 참여했다.

협의회의 명예회장은 중국 고판화의 권위자인 보송년 중국 중앙미술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으며, 초대회장에

는 한국의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이 추대됐다.

협의회에는 강문언 중국 천진미술학원 교수, 이이쿠치 일본국문학연구자료관 교수, 나가이 나라대 교수 등 해외 고판화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과 참여연구자들은 앞으로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국제학술지를 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나라 별로 순회하면서 고판화 특별전도 연다.

특히, 고판화 연구를 주도하는 한국 명주사고판화박물관과 중국 무강년화박물관은 매년 교차 전시회와 축제를 개

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중국 무강년화박물관에서 한국 고판화 특별전이 열린다.

초대회장에 추대된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은 “동아시아 고판화의 가치를 연구하고 보존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연구하고 소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성과들을 축적해 협의회를 유네스코 산하 비정부기구(NGO)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백발백중 백초귀장술 특강

창시자 백초스님 직강

- ① 역학을 배우고 상담 업을 시작하려는 분! (꼭 필요함)
- ② 역학공부 안하고 신도가 물을 때 옳은 답변 쉽게 하고 싶으신 스님 분! (조상 뽑기 쉬워서 천도재 집전 불사가 쉽습니다.)
- ③ 영험하고 신통한, 남다른 상담을 하고 싶은 분!
- ④ 신 받았는데 아무 것도 점사가 안 떠오르는 신제자 분들!

확실하고 & 신통한 비법 전수해드립니다. 적중률 95%

□ 백초귀장술 책 이외의 특수비법과 실전노하우 전수 위주로 3개월간 주 1회씩 진행됩니다. 강의 듣고 나면 바로 활용 가능함.
□ 한문 몰라도 되고, 역학 몰라도 쉽게 왜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수강료 : 1일 일일만원, 10만원 농협 302-4233-7099-41(김경석)

【서울 개강】 6월 12일 일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 강의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2-50 유빌딩 301호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7번출구 3분거리 /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10분거리입니다.

【부산 개강】 6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 강의 장소 : 부산 동구 중앙대로(부산역 광장 맞은편 엔제리너스 4층)

백초울력학당 연락처 010-3813-4443, 010-4233-7099
Cafe.naver.com/백초울력학당

승관이 된 판을 깨자! 지혜로운 판을 짜자!

제57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템플스테이와 계층법회, 불교학교의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승관이 된 판을 깨자! 지혜로운 판을 짜자!” 라는 주제로 제57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역사사지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껴볼 수 있는 체험형 강습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에 동참하시면 다양한 교재교구 전시와 지도자 상담을 통하여 여름캠프 및 템플스테이 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제57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는 더 많은 분들께 체험의 기회를 드리고자 2차로 나누어 개최되오니 지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 일시 / 장소

1차	2차
2016년 6월 18일 (토) 오전 9시 ~ 오후 6시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서울시 송파구 백계로39길 35)	2016년 6월 25일 (토) 오전 9시 ~ 오후 6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칠곡도량 (대구시 북구 구암로 238)

● 대 상 : 템플스테이, 계층 법회 지도법사, 지도자와 실무담당자, 포교사 등 포교활동에 관심 있는 모든 분

● 프로그램 및 강사
* 명사특강 : 지혜로운 판을 짜자!
* Ice Break 및 심어롱 / 레크리에이션의 활용과 실제
* 체험활동 : 신나는 놀이와 만들기 세상
* 찬불가 율동 및 활용의 실제
* 교재교구 전시 및 단체 응모, 체험 프로그램 안내

● 참가비
사전접수 5만원 당일접수 6만원
1차 : 6월 14일(화)까지 (사전 접수 이후~강습회 당일)
2차 : 6월 21일(화)까지

* 참가비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참가비 입금 미확인 시 당일접수 참가비 적용
* 환불은 사전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신 분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교재와 기념품으로 대체 하여 발송.
* 단월별 10인 이상 접수 시 10% 할인 / 재주도 군중생 3만원 * 본회 주최 후원회원은 무료
입금계좌번호: 국민 60301-04-1326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접 수 : 각 회차별 선착순 100명
모바일(QR코드), 이메일, 전화, 팩스 접수 후 참가비 입금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burec [지도자 강습회] [지도자 강습회]
E-mail(burec@daum.net), Fax(02-738-7863)

● 문 의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국 (02-738-7860 / 02-739-4967)